

2017 하계 이화봉사단 국내교육봉사

전라남도 완도군
- 완도여자중학교



2017. 7

대학생이 된 후 처음맞는 방학을 알차게 보내고싶다는 용기로 교육봉사에 지원했다. 처음에는 그 시절을 겪어본 언니의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수있다는 생각에 마냥 신이났다. 하지만 교육봉사를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신경써야하는 부분이 많아 걱정되기 시작했다. 아이들에게 과연 내가 어떤 도움을 줄수있을까? 오히려 안좋은 영향을 주는건 아닐까? 더 좋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거듭 고민을 하면서 완도로 향했다. 설렘반, 걱정반을 가지고 완도에 도착해서 처음 만난 아이들은 너무 해맑고 순수했다. 멘토선생님들이 준비한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고 먼저 다가와주는 아이들의 모습은 정말 감동이었다. 또한 그런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멘토선생님들의 열정에도 큰 감동을 받았다. 서로에게 최선을 다했기에 교육봉사 프로그램을 모두 잘 마무리할수있었다. 이번 교육봉사에서 만난 훌륭한 멘토선생님들과 아이들을 통해 많은것을 경험하고 느꼈다. 너무나도 값진 경험덕분에 성장했음을 느꼈다. 다음 교육봉사에는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참여하고 또 다시 값진 경험을 하고싶다.

최*지

저는 다시 완도로 가고싶다. 이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교육봉사를 많이 해봤지만 이게 지역차이일지는 몰라도 아이들이 정말 순수하다고 느꼈고, 제가 멘토로서 참여했지만 오히려 제가 배우는 게 많았던 경험이었어요. 저는 목적을 가지고 다가갔지만 아이들은 조건없이 다가왔고, 조건없이 끝난 느낌이랄까요. 이들이 원하는 것과 멘토들이 원하는 것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과 멘토들이 원하는 것이 따로 정해져있는 게 아니라 서로 교감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서로 실망하지 않고 서로 섭섭해하지 않고 서로 원하는 방식으로 끝난다고 생각해요. 이걸 겪어 봐야 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적으로 무언가를 금하는 게 아니라.

이*수

가르쳐 준 것보다 배운 것이 더 많은 봉사였다.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보면서 지난 나를 반성할 수 있었고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들의 깊은 생각에 놀랐다. 뿐만 아니라 이화인으로서 이화의 마크를 달고 봉사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뿌듯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정*윤

그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싶은마음에 지원하게 되었지만,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느낄수있었던 이번 교육 봉사였다. 4학년이라서 이번 봉사가 이화에서 보낸 마지막 봉사라는 것이 아쉽다. 그러나 완도에서 배운 나눔의 가치를 이화 밖에서도 실천하고싶다.

중,고등학교 영어교사가 되고싶었던 저는 사범대학에 진학했지만 , 다소 말이 적은 성격 때문에 ' 교사가 되면 학생들과 잘 지낼수있을까?' 라는 걱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화여대 - 완도여중 봉사활동을 통해 성격보다는 학생들을 향한 진심과 애정이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5명의 학생들이 있는 조의 담당멘토가 된 뒤 여러 활동을 하며 관심사,학교생활에 대해 물어봤었는데, 짧은 시간 만났음에도 마음을 열고 꾸밈없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주는 멘티학생들이 귀여웠고 고마웠습니다.

또 상담시간 한 학생의 성적,가족에 대한 고민 을 듣게 되며 중학교때 친구 및 가족관계, 학업으로 힘들었던 제 모습이 떠올라 안쓰럽기도 했고, 들어줄 뿐 명확한 문제해결방법을 줄 수 없었기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시작할 때에는 이 4박5일의 프로그램이 과연 도움이 될까? 내가처음보는 학생들과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어색하진 않을까 라는 여러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멘토분들의 준비로 모든 순서 프로그램들이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걱정만 한 것 보다 배로 학생들의 사랑을 받고 교사라는 꿈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완도여중 학생들 모두 정말 고마워요! 이화봉사단 완도여중팀 '화이팀' 고맙습니다.다시 만날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허*윤

완도에서의 4박 5일은 말 그대로 '힐링' 그 자체였다. 아이들과 친해지고 교감하며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았다. 순수한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보면 피곤함도 잊혀졌다. 아이들과
별로 친해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정이 들어 헤어지는 날 서로 펍펍 울었다.
"자윤 선생님"이라고 나를 부르며 자신의 꿈에 대해 신이나서 설명하는, 맑은 눈망울로 나를
쳐다보는 완도여중 아이들이 너무 좋았다. 교육봉사를 하러 갔지만 내가 훨씬 더 받은 것도
배운 것도 많은 값진 4박 5일이었다.

권*은

이화봉사단으로 봉사하게 된 것은 처음이라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한 것이 쓸모없게 느껴질 만큼 봉사하면서 만난 사람들은 무척 친절하였고 시설도 좋았으며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제가 진행하였던 미니 올림픽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과 함께 땀흘리고, 웃고, 뛰어 놀 수 있어서 의미 깊은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완도여중 학생들이 에너지 넘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제가 힘을 얻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완도여중에 가는 첫날, 아이들과 함께 나도 긴장이 되었다. 말은 잘 들었지만 다들 아직 친하지 않아서인지 정말 조용했던 기억이 난다. 앞으로의 활동에 잘 참여해줄지 걱정도 되고, 어떻게 빨리 다 같이 친해질지 고민도 했다. 하지만 이런 걱정과 고민이 무색하게 모두 하루가 지날 수록 고맙게도 마음을 열어주었고 모든 활동에 다 열심히 참여해주었다. 활동이 끝날 때마다 학교 선생님을 통해 들은 아이들의 의견은 나를 뿌듯하게 했다. 집이 멀어도 이 활동이 재미있어서 오게 된다면, 계속 기대된다는 아이들의 말을 전달받을 때마다 힘이 났다. 열심히 참여하는 아이들, 밝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호의적으로 대해주셔서 정말 지지가 많이 되었다.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을까 신경써주셔서 정말 감사했다. 완도여중에서의 4일은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이다. 이런 좋은 기억으로 계속해서 이화봉사단원으로 교육봉사를 가게 되는 것 같다.

계절학기가 끝나고 가볍게 놀러가는 것처럼 다녀오면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화봉사단을 시작했다. 그리고 막상 준비기간이 되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지,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했다. 계절학기 수업 때문이기도 했고, 생각보다 준비 일정이 여유롭지 않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기도 했다. 하지만 10명의 학생들이 함께 준비하다보니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척척 준비해나갈 수 있었다.

어느덧 완도로 떠날 날짜가 되었고, 우리는 완도에서 처음으로 다함께 모였다. 부팀장을 맡기는 했으나 준비과정에서 큰일을 도맡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캠프가 시작되고 나니 자연스럽게 진행을 맡게 되었다. 첫날에는 어색하고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나니 열심히 임할 수 있었다.

처음 만나는 벼들과 중학생 아이들에게 이 캠프가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만들고 싶었다. 벼들은 자신이 맡은 프로그램을 열심히 준비해왔고, 아이들은 낯선 우리에게 쉽게 마음을 열어 주었다. 낯선 곳에 봉사활동을 하러 온 우리들을 보며 아이들은, 맛집을 소개해 주기도 하고 학교자랑도 하고 식사여부를 물으며 오히려 우리들을 챙겨주었다. 어리지만 따듯하고, 장난스럽지만 진지한 꿈을 가진 아이들이 너무나 예뻐보였다. 우리는 아이들이 이 캠프를 통해 진로고민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학업에 도움이 되며 즐거운 방학이 될 수 있기를 바랐다. 나는 봉사활동의 제공자이고 아이들은 수혜자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봉사활동을 끝내고 난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들은 순수하지만 의젓한 모습으로 학점과 스펙 쌓기에 치여 지친 우리를 위로해주었던 것 같다. 일주일 남짓한 캠프동안 힘을 얻은 것은 나 자신이었다. 마지막 날 눈물을 보이며 울던 아이들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겨우 며칠 함께했던 것 뿐인데, 함께 웃고 함께 고민하며 삶을 나누었던 시간들이 반짝거리는 기억으로 남았다. 아이들이 써온 소감문에는 캠프가 재미있었고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이러한 캠프를 준비해준 멘토언니들에 대한 감사와 자신들을 비롯한 멘토언니 모두가 꿈을 이루길 바라는 소망이 담겨있었다. 성적이나 학과를 떠나,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보내는 아이들의 힘찬 응원이 우리들을 눈물 짓게 했다.

학교의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았지만, 처음부터 내손으로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은 처음이었다. 봉사활동을 하러 가서 내가 얻은 것이 더 많다는 느낌을 받은 것도 처음이었다. 다음 방학 때도 시간이 된다면 꼭 다시 한 번 참여하고 싶다.

“아무 기대 없이 자고 가려고 했어요. 다음 날은 기대하면서 걸어 왔어요. 내일은 뛰어 올 거예요!” 캠프 둘째 날 점심 시간, 한 학생이 말했다. 참고로 이 학생은 매일 1시간 30분 가량을 걸어 등교한다고 한다. 아이들이 캠프에 만족할까,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될까 노심초사 하며 마음 졸이던 나날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완도여중 캠프 준비를 위해 한 달 전부터 10명의 멘토들은 서울에서 몇 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기획부터 비품 준비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 어려움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캠프를 통해서 최대한의 것들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목표에 맞춰 의견들을 조율하였다.

서울에서 완도로 이동한 날, 5시간 이상의 버스를 탄 멘토들은 모두 피곤에 지쳐 기대 없이 완도에 도착했다. 하지만, 완도는 향긋한 부들가의 바다냄새, 완도타워에서 나오는 레이저, 그리고 무엇보다 친절한 사람들로 방긋 웃으며 우리를 맞이하여 주었다. 오후 8시가 넘어 저녁 식사를 위해 식당을 알아보던 중, 열려 있는 식당이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다시 한번 완도에 왔음을 체감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완도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드디어 캠프 첫 날,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이들은 초롱초롱한 눈빛과 빛나는 미소로 멘토 한 명, 한 명을 반가운 박수로 맞이해 주었다. 티셔츠를 꾸미고, 이름표를 만들며 서로를 알아가고, 다양한 게임을 통해 분위기를 풀어 나갔다. MBTI 검사를 통해 본인의 성격과 진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상당 수의 아이들이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약간은 서먹했던 첫 날이 지나고, 둘째 날,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감동스러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아이들이 한국사 골든벨 퀴즈를 위해 서로 퀴즈도 내주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열정적으로 프로그램에 임해주는 아이들을 보니, 긴 여정과 프로그램 준비로 인한 피로들이 스르르 풀렸다.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와서 한국사 퀴즈에서 만점을 받은 친구들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것이 고마웠다. 또, 더운 햇빛 아래에서 미니올림픽 등 준비한 프로그램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는 아이들을 보며 멘토들도 더 열심히 프로그램 진행에 임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도시락, 피자,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음식들을 학교에서 준비해 주셔서 멘티와 멘토 모두 배를 든든하게 채웠고, 아이들은 마음의 양식까지 채워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시골벽적이고 활기찼던 전날과는 달리 셋째 날의 캠프는 진지함과 눈물이 공존했다.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습법과 이과, 문과, 예체능 체험부터 인생 그래프 그리기까지 현재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알찬 프로그램들로 가득 차 있었다. 약간 딱딱한 내용 때문에 지루해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는 달리 아이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해 주었고, 수업시간이 끝나고 따로 학습계획에 대하여 묻는 친구들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1:1 고민상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멘토들과 멘티들이 가장 정이 많이 들면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아니었을까 싶다. 아이들은 학습, 진로 고민에서부터 친구관계, 가족관계 등

개인적인 일까지 멘토들에게 털어 놓아 주었다. 눈물을 흘리며 고민을 얘기하는 아이들을 보니, 만난 지 며칠 되지 않은 우리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 놓아 준다는 고마움과 더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한 미안함에 덩달아 눈물이 났다. 너무나도 순수하고 착한 아이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서 상담이 끝나고 밤에 멘토들이 개별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보기도 하였다.

캠프 마지막 날, 아이들은 미래의 자신에게 편지를 써서 타임캡슐을 묻었다. 또, 멘토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롤링페이퍼로 쓰며 캠프를 마무리하였다. 서로 편지를 주고 받으며 교실은 순식간에 울음바다로 변하였고, 모두 짧은 캠프 기간을 원망하였다. 몇몇 아이들은 서울로 가는 버스 시간에 맞춰 터미널로 멘토들을 마중하러 나오며 마지막까지 감동을 주었다.

사실 3박 4일간 이 정도의 정이 들 수 있다는 것이 지금도 믿기지가 않는다.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외할머니 댁이 완도라 가끔 방문한 적이 있다. 완도에 올 때마다 외할머니의 인심과 청량한 풍경으로 힐링을 하고 간 기억이 있다. 성인이 된 후 처음 찾은 완도는 내 기억 속의 완도와 다름 없이 여전히 따뜻하고 행복한 섬이었다. 자신의 밥보다 선생님의 밥을 먼저 챙겨 주는 아이들, 떠난다는 말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써준 아이들, 언제나 필요한 건 뭐든지 말하라며 완도의 따뜻한 정을 보여주신 완도여중 선생님들... 모두들 너무 감사하다. 봉사라는 모토로 시작한 캠프였지만 멘토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우리가 힐링을 하고 간다고 이야기하였다.

건강의 섬, 완도. 완도에서 얻은 건강한 기운으로 서울에서의 바쁜 일상들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완도여중 아이들 모두 특유의 순수함과 건강함으로 완도 바다만큼이나 광활한 미래가 펼쳐 지기를 바란다. 특히, 이화의 가족으로 만나 또 다른 추억을 쌓는다면 더없이 행복할 것 같다. 완도여중 아이들이 강점을 살려 이화에서 주도하는, 지혜로운, 실천하는 인재로 발돋움하였으면 좋겠다.